넥센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출시

초고속 주행에 안정성도 확보 ... 상반기 국내시장 이어 130개국 노크

넥센타이어가 초고성능(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N9000과 N8000, N6000 등 UHP 신제품 3종을 개발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국내시장 판매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130개국에 본격적으로 수출한다.

UHP제품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이 적용된 프리미엄 타이어로 세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9000은 스포츠카 전용타이어로 빗길 등 다양한 도로여건에서도 초고속 주행성능을 자랑하며 운전자의 의지대로 드라이빙할 수 있는 탁월한 조종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N8000은 수입세단을 위한 초고성능 타이어로 비대칭 패턴을 적용해 조종응답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고속 주행할 때 안정적인 핸들링과 저소음으로 우수한 드라이빙 능력을 나타내며, 수막현상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해 빗길운전에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N6000은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고속 주행할 때 방향성이 뛰어나고 배수능력이 우수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N9000과 N8000, N6000 신제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됐다”며 “신제품 모두가 노면과 타이어의 압력을 최소화해 승차감과 내마모성, 소음방지 부문에서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전체 매출 가운데 UHP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3%에서 2009년 30%까지 성장할 정도로 프리미엄 제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8>